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Peer Acceptance in Relation to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박사과정 황 영 미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교 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 Family, Catholic Univ.
Graduate Student, Ph. D. Course : Hwang, Young Mi
Dept. of Child, Catholic Univ.
Professor : Moon, Hyuk J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및 결론 |
| II. 연구 방법 | 참고문헌 |
| III. 결과 및 해석 | |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relations of peer acceptance to children's temperament, maternal self-efficacy, and paternal involvement. A total of 405 children (189 popular children, 216 unpopular children; aged 5 years old) and their parents were studied. The children's peer acceptance was measured by peer nomination and the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father's child rearing involvement were assessed by a parent reported questionnaire. In the results, popular children recorded higher scores than unpopular children in sociability, activity, maternal parenting efficacy, and 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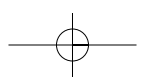
주제어(Key Words): 또래수용도(peer acceptance), 기질(temperament), 양육효능감(parenting self-efficacy), 아버지 양육참여도(paternal child rearing involvement)

1. 서론

유아들은 성장해 감에 따라 사회적 관계를 가족의 범위에 서 또래의 범위로 넓혀나가고 이러한 또래와의 관계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중요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가

족 형태의 변화와 취업모의 증가, 조기교육의 추세로 인해 유아들은 아주 어린 연령부터 집단생활을 경험하고 있어 또래집단에서 한 유아에 대한 다른 유아의 선호성 정도로 정의 되는 또래수용도는 유아의 적응 및 발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유아가 또래집단으로부터 수용되고 인정받는다

Corresponding Author: Hyukjun Moo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43-1 Yokkok 2-dong, Wonmi-gu, Buchon, 420-743, Korea Tel: 82-2-2164-4486 Fax: 82-2-2164-4485 E-mail: mhyukj@unitel.co.kr



는 느낌을 갖게 되면 긍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안정감이 생기게 되고, 긍정적인 또래상호작용을 통해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어 유아의 사회성, 정서, 인지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송명자, 1995). 몇몇 연구(Coie, Dodge, & Coppotelli, 1992; Coie & Kupersmidt, 1983; French & Waas, 1985)에서도 또래에게 인기있는 유아는 사교적이고 협동적인 반면 무시된 유아는 수줍음을 타고 위축된 행동을 보이며 거부된 유아는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행동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더 나아가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 학교중퇴, 지행, 자살 등 사회적 부적응을 경험하고(Parker & Asher, 1987),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 직면했을 때 이를 완화해 주는 적절한 사회적 지지망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이후 심리적인 부적응을 경험하고, 반사회적 행동이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되어 왔다(Coie, 1990; Hartup, 1983).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집단따돌림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유아기부터 또래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또래관계를 또래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볼 때 모든 유아가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것은 아니며, 또래로부터 수용되는 정도는 유아 개인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어떤 유아는 또래와 함께 잘 지내며 즐겁게 놀이에 참여하여 인기를 얻는가 하면, 어떤 유아는 또래집단 속에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놀거나 친구들로부터 무시되어 고립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컴퓨터의 발달로 인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이 줄어들고 그로 인해 유아들은 또래집단생활에서 적절한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감소하여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유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유아기 낮은 또래지위의 장·단기적 결과에 관한 연구들이 나오면서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려는 노력과 함께 또래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재프로그램들도 개발되어 오고 있다.

한편 또래수용도는 유아의 내적 특성과 외적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Buss와 Plomin(1975)은 기질은 생애 초기부터 나타나는 유전적인 성격특성으로 환경적 요인보다도 생물학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으며, 천희영(1993) 또한 타고난 기질 유형에 따라 사회적 환경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지며, 이로 인해 유아의 성격과 행동에 개인차가 생긴다고 보는 등 유아의 적응 및 사회·정서 발달 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었다.

유아의 기질에 따라 또래집단에 수용되는 정도를 살펴보면, 까다로운 유아는 순한 유아에 비해 유치원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원영미, 1990), 또래지위는 기질

차원에서 정서성, 적응성, 접근성과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정은숙, 1984). 고은주(1993)의 연구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적응을 경험하는 유아들은 기질 차원중 적응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명숙(1998)의 연구에서는 비인기아 집단의 유아들은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갈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er-Cohen과 Bell(1988) 또한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유아들은 높은 적응성과 활동성을 보이며,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유아들은 낮은 적응성과 정서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상의 기질적 특성과 더불어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인들 중 유아와 가장 밀접한 부모 변인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Dodge, Bates와 Pettit(1990)는 부모가 양육기술에 대해 폭넓은 관점을 지니고 있을 때 유아의 또래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되었다. 한편, 부모의 양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주로 부모의 양육태도나 행동에 관한 것들이었으나 최근에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인 측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Coleman & Karraker, 1998; Gondoli & Silverg, 1997; Teti & Gelfand, 1991).

Teti와 Gelfand(1991)는 양육효능감이란 효율적으로 양육의 과업을 완수하는 능력에 대한 부모의 믿음이라 정의하였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의 자아형성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인지능력 등,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즉 양육효능감이 높은 어머니는 자녀에게 수용적이고 비체벌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며, 자녀를 잘 이해하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좀 더 원활하게 이끄는 경향이 있다. 반면, 양육효능감이 낮은 어머니는 통제적이고 강압적이고 체벌적이며, 아동을 학대하는 경향이 많고, 부모역할에 수동적 대처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은 자녀의 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적응 행동에 중요한 변인이라는 사실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Amato, 1994; Blankenhorn, 1995; Mott, Kowaleski-Jones & Menaghan, 1997; Benczano & Rohner, 1998).

핵가족 내에서 부모역할과 책임의 변화에 따라 아동에 대한 아버지 역할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근래까지 우리 문화에서 대다수 남성은 자녀양육에 있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으며, 영유아의 양육이나 교육은 전적으로 여성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다(최경순, 1990). 그러나 오늘날에는 자녀양육과 교육에 아버지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아동양육에 직접 참여하는 아

버지 또한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Hoffman, 1989; Parke & Tinsley, 1987).

이러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유아의 인지 및 성역할, 도덕성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있다(Adams, Milner, & Schrepf, 1984; Lamb, 1986). 국내연구(정현희, 최경순 1995; 한미자, 2002; 정현희, 최경순 1992; 김광웅, 이인수, 1998)에서도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며 자녀와 관계된 가사활동에 잘 참여하는 경우일수록, 그 아버지의 자녀는 내적 통제력이 강하며, 동료와의 상호작용을 활발히 시도하고, 성취동기 및 호기심이 높으며,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하는 특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버지가 양육의 제 측면에 참여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혁준(2000)의 연구에서는 인기아의 아버지는 고립아의 아버지보다 자녀 양육에 더 적극적인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버지가 자녀와 시간을 많이 보내고 친구처럼 자녀와 여러 활동을 함께 하며, 높은 반응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 특성에 대한 연구와 공격적인 행동과 사회적 기술이 또래수용도와 관련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Coie & Kupersmidt, 1983; Dodge, 1983),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인들 중 유아 개인의 변인과 유아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부모 특히 아버지에서 그 변인을 찾고자 시도한 연구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이러한 맥락에서 또래수용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의 양육태도를 비교하는데 머물러 있으며,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또래수용도와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최근 유아교육기관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아들에게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본 원인을 찾아내어 또래 집단에서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한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가 자녀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내어 부모교육과 관련된 시사점을 얻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1. 또래수용도,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또래수용도에 따라 아동의 기질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또래수용도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4. 또래수용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인천, 부산지역에 위치한 7개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유아 42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중 또래수용도 검사를 통해서 미분류 아동으로 지목된 15명을 제외한 총 405명의 유아가 최종 분석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본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 유아의 성별은 남아가 214명(52.8%), 여아가 191명(47.2%)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91세(SD=.49)였다. 출생순위를 살펴보면 외동아가 77명(19.0%), 첫째아가 152명(37.5%), 둘째아가 152명(37.5%), 셋째 이하가 22명(5.4%)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 수	빈 도	백분율(%)	계(%)	평균(SD)
유아 성별	남 아	214	52.8	405 (100.0)	
	여 아	191	47.2		
출생 순위	외 동 아	77	19.0	405 (100.0)	
	첫 째 아	152	37.5		
	둘 째 아	152	37.5		
	셋 째 아	21	5.2		
	넷 째 아	1	.2		
	무 응 답	2	.5		
어머니 연령	33세 이하	142	35.1	405 (100.0)	35.07 (3.53)
	34~36세	149	36.8		
	37세 이상	112	27.7		
	무 응 답	2	.5		
아버지 연령	36세 이하	114	28.1	405 (100.0)	38.65 (3.76)
	37~40세	178	44.0		
	41세 이상	105	25.9		
	무 응 답	8	2.0		
어머니 직업	전업주부(비취업)	264	65.2	405 (100.0)	
	전 문 직	46	11.4		
	관 리 직	9	2.2		
	사무직·기술직	36	8.9		
	판매직·서비스직	31	7.7		
	기 타	17	4.2		
	무 응 답	2	.5		
아버지 직업	전 문 직	40	9.9	405 (100.0)	
	관 리 직	92	22.7		
	사무직·기술직	170	42.0		
	판매직·서비스직	75	18.5		
	기 타	20	4.9		
	무 응 답	8	2.0		
	가족 형태	핵 가 족	355		
대 가 족		46	11.4		
기 타		3	.7		
무 응 답		1	.2		

4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2호, 2006

연구 대상 유아 부모의 평균 연령은 아버지가 38.65세(SD=3.76), 어머니가 35.07세(SD=3.53)였다. 부모의 직업을 살펴보면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기술직이 170명(42.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리직이 92명(22.7%), 판매직·서비스직이 75명(18.58%), 전문직이 40명(9.9%) 순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전업주부(비취업)가 264명(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 46명(11.4%), 사무직·기술직이 36명(8.97%), 판매직·서비스직이 31명(7.7%), 관리직이 9명(2.2%) 순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가족형태를 살펴보면 핵가족이 355명(87.7%), 확대가족이 46명(11.4%), 기타가 3명(0.7%)으로 확대가족보다 핵가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2. 연구 도구

1) 또래수용도 척도

또래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Asher와 Dodge(1986), Howes(1989)가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연구자와 학급의 담임교사가 개별 유아를 면담하여 친구의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와 가장 놀고 싶은지”를 질문하며 3명을 지명하도록 한다. 학급내 유아들이 지명한 좋아하는 친구의 빈도수로 학급 평균을 산출하여 산출된 학급 평균 점수에서 표준편차를 나눈 Z점수를 기준으로 평균보다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으로 구분 하였다.

2) 아동의 기질 유형 척도

아동의 기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 Buss와 Plomin(1986)이 개발한 아동용 EAS(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수정·보완한 한세영(1996)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EAS척도는 정서성(Emotionality), 활동성(Activity), 사회성(Sociality)의 세 가지 요인으로, 정서성 6문항, 활동성 5문항, 사회성 9문항의 총 20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정서성은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활동성은 활력과 민첩함에 관련되며 끊임없이 움직이며 행동하는 특성을, 사회성은 혼자 있는 것보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하는 성향으로 사람들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사교적인 특성을 의미하며, 아동의 기질을 어머니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3)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는 최형성(2001)이 Allen(1993), Dorsey(1999), Johnson과 Mash(1989)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로 하여 제작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양육문항(11문항),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7문항), 의사소통능력(9문항), 학습지도능력(6문항), 훈육능력(4문항)의 다섯 개의 하위요인, 총 37문항, 5점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4)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아버지의 양육참여 측정 도구는 일상생활에서 아버지가 자녀의 양육에 얼마나 참여하는지를 조사하는 도구로써, 최경순(199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30문항, 5점 척도로 여가활동(12문항), 생활지도(9문항), 가사활동(4문항), 인지적 성취지도(4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유아에게 해당되는 문항 29문항만을 사용하여, 아버지가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참여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들의 신뢰도 (N=405)

척도	문항수	신뢰도
기질	20	.79
정서성	6	.72
활동성	5	.78
사회성	9	.85
어머니 양육효능감	37	.94
전반적인 양육	11	.89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7	.71
의사소통능력	9	.84
학습지도능력	6	.80
훈육능력	4	.66
아버지 양육참여도	29	.94
여가활동	12	.90
생활지도	9	.89
가사활동	4	.85
인지적 성취지도	4	.71

3. 연구 절차

1) 예비조사

본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알아보고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의 1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만5세 유아 7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와 담임교사가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측정하고 그들의 부모님을 대상으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대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의 내용을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여 별다른 수정을 하지 않고 본조사에 들어갔다.

2) 본조사

서울, 인천, 부산지역 총7개 유치원을 선정하여 만5세 유아 445명을 대상으로 2004년 10월8일부터 2004년 11월29일 사이 또래수용도 측정을 한 후 이들의 부모에게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관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이중 회수된 질문지는 420부(회수율 94%)이었으며, 이 중 또래수용도 검사를 통해 미분류된 유아 15명을 제외한 총 405명이 본 연구 대상으로 확정되었다.

4.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유의도 $p < .05$ 이하 수준에서 SPSS WIN 1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주요 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빈도, 백분율)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연구문제 1> 즉, 아동의 또래수용도,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셋째, <연구문제 2, 3, 4> 즉, 또래수용도 상, 하 집단에 따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또래수용도,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전반적인 경향

사회성 측정 검사를 통해 아동의 또래수용도를 분석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듯이 또래수용도 상위 집단은 189명(45.0%), 하위 집단은 216명(51.4%)으로 나타났으며, 미분류아동은 15명(3.6%)였다.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의하면 아동의 기질은 그 하위영역별로 볼 때, 정서성은 2.77점(SD=.65), 활동성은 3.73(SD=.72), 사회성은 3.64점(SD=.60)으로 응답 가능한 점수범위(1~5점)의 중간 점수인 2.5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활동성, 사회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서는 전체 평균은 3.74점(SD=.40)이었으며, 하위 영역인 전반적인 양육은 3.52점(SD=.5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은 3.83점(SD=.43), 의사소통능력은 3.85점(SD=.43), 학습지도능력은 3.73점(SD=.52), 훈육능력은 3.91점(SD=.44)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이상의 양육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서는 전체 평균은 3.20점(SD=.61)

<표 3> 아동의 또래수용도

집 단	빈도(명)	%
상위집단(평균 이상)	189	45.0
하위집단(평균 미만)	216	51.4
미분류아(평균)	15	3.6
합 계	420	100.0

<표 4> 주요 측정 변수들의 기술적 통계치

변 수	점수범위	평균(M)	표준편차(SD)
기질	0~100		
정 서 성	0~30	2.77	.65
활 동 성	0~25	3.73	.72
사 회 성	0~45	3.64	.60
어머니 양육효능감	0~185	3.74	.40
전반적인 양육	0~55	3.52	.5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0~35	3.83	.43
의사소통능력	0~45	3.85	.43
학습지도능력	0~30	3.73	.52
훈육 능력	0~20	3.91	.44
아버지 양육참여도	0~145	3.20	.61
여 가 활 동	0~60	3.39	.69
생 활 지 도	0~45	3.33	.65
가 사 활 동	0~20	2.69	.97
인지적 성취지도	0~20	2.86	.74

이었으며, 하위 영역인 여가활동은 3.39점(SD=.69), 생활지도는 3.33점(SD=.65), 가사활동은 2.69점(SD=.97), 인지적 성취지도는 2.86점(SD=.74)으로 아버지들은 여가활동에서 양육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중간 수준이상의 양육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또래수용도에 따른 아동의 기질을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M=3.80, SD=.69)은 하위 집단(M=3.66, SD=.73)보다 활동성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t=1.94$, $p < .05$)가 있었다. 사회성 역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M=3.74, SD=.59)이 하위 집단(M=3.55, SD=.59)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t=3.31$, $p < .001$)가 있었던 반면, 정서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3. 또래수용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또래수용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5> 또래수용도에 따른 아동의 기질

성별(N) 기질	상 위 집 단		하 위 집 단		t 값
	M	SD	M	SD	
정 서 성	2.76	.61	2.78	.68	-.33
활 동 성	3.80	.69	3.66	.73	1.94*
사 회 성	3.74	.59	3.55	.59	3.31***

* $p < .05$, *** $p < .001$

〈표 6〉 또래수용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	성별(N)		상위집단		하위집단		t 값
	M	SD	M	SD	M	SD	
전반적인 양육	3.59	.47	3.46	.52	2.70**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3.88	.43	3.80	.44	1.83		
의사소통 능력	3.88	.42	3.82	.43	1.57		
학습지도 능력	3.79	.52	3.67	.51	2.37*		
훈육능력	3.94	.43	3.88	.45	1.42		
양육효능감(전체)	3.79	.39	3.69	.40	2.46*		

*p<.05, **p<.01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전반적인 양육($t=2.70, p<.01$), 학습지도 능력($t=2.37, p<.05$), 양육효능감(전체) ($t=2.4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전체)에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M=3.79, SD=.39$)이하위 집단($M=3.69, SD=.40$)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전반적인 양육에서 상위 집단($M=3.59, SD=.47$)이 하위 집단($M=3.46, SD=.52$)보다, 학습지도 능력에서 상위 집단($M=3.79, SD=.52$)이 하위 집단($M=3.67, SD=.51$)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 훈육능력은 또래수용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또래수용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또래수용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따른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는 여가생활($t=2.15, p<.05$), 생활지도($t=2.35, p<.05$), 인지적 성취지도($t=2.25, p<.05$), 양육참여도(전체)($t=2.4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전체에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M=3.28, SD=.62$)의 아버지가 하위 집단의 아버지($M=3.13, SD=.58$)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하위영역의 여가생활에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

〈표 7〉 또래수용도에 따른 아버지 양육참여도

양육효능감	성별(N)		상위집단		하위집단		t 값
	M	SD	M	SD	M	SD	
여가생활	3.47	.69	3.32	.68	2.15*		
생활지도	3.42	.65	3.26	.65	2.35*		
가사생활	2.76	.99	2.62	.95	1.43		
인지적 성취지도	2.95	.77	2.78	.70	2.25*		
양육참여도(전체)	3.28	.62	3.13	.58	2.49*		

*p<.05

단의 아버지($M=3.47, SD=.69$)가 하위 집단의 아버지($M=3.32, SD=.68$)보다, 생활지도에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의 아버지($M=3.42, SD=.65$)가 하위 집단의 아버지($M=3.26, SD=.65$)보다, 인지적 성취지도에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의 아버지($M=2.95, SD=.77$)가 하위 집단의 아버지($M=2.78, SD=.70$)보다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가사생활은 또래수용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따라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서울, 인천, 부산에 위치한 7개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5세 유아 420명 중 또래수용도 검사를 통해 또래수용도가 높은 아동 189명과 낮은 아동 216명, 미분류된 아동 15명을 제외한 총 405명의 유아와 그들의 부모가 최종 분석 대상이 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또래수용도에 따른 아동의 기질은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중에서 활동성과 사회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중간 수준 이상이었으며, 하위 영역으로 훈육능력, 의사소통능력, 건강하게 양육하는 능력, 학습지도능력, 전반적인 양육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버지들의 양육참여도에서도 역시 대체로 중간 수준 이상의 양육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여가생활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 아동의 기질 차이를 살펴보면, 활동성과 사회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높은 사회성은 사교적이고 친구들을 쉽게 사귀며 다른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또래관계에서도 수용되고 인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기질과 또래수용도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정은숙(1984)의 연구와 또래에게 수용되고 인기있는 유아들은 높은 활동성과 적응성을 보이며 또래에게 수용되지 못하는 유아들은 낮은 정서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Parker-Cohen과 Bell(1988)의 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김영희(1996)와 홍계옥(2001)은 유아의 기질과 유치원에서 적응과의 관계에서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유치원 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보였다는 것과 활동성이 높을수록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어 다른 유아의 활동에 방해줄 수 있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활동성은 많은 아동들과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 또래관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부정적 요인일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illman & McDevitt, 1980). 그러므로 활동성이라는 한 차원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기질적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고 기질에 대한 정의와 측정상의 문제로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Stocker와 Dunn(1990)의 연구에서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아동이 더 많은 또래 거부를 경험한다고 보고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지지되지 못하였다.

셋째, 또래수용도와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을 살펴보면,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의 어머니가 하위 집단의 어머니 보다 양육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아동의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문태형, 2002; Coleman & Karrake, 1998; Teti & Gelfand, 1991)와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끈다는(Dorsey, Kle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group, 1999)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 하위 영역을 살펴보면 두 집단이 훈육능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며 학습지도 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Elder와 그의 동료들(1995)의 연구에서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자녀들을 더욱 많이 충고하고, 감독하거나, 자식들에 대해 훨씬 반응적이며, 학교 숙제를 돕는 등의 장려적이며 예방적인 양육전략을 사용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서 훈육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훈육능력은 부모의 교육수준, 연령 등 부모의 변인과 무관한 것으로 자녀의 행동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기본적인 생활습관 훈련의 역할은 어머니 보다 아버지가 그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노현미, 박인전, 1999).

이상의 결과는 어머니들의 양육효능감을 높여 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내에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넷째, 또래수용도와 아버지의 양육참여도를 살펴보면,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의 아버지가 하위 집단의 아버지 보다 양육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하위영역을 살펴보면, 또래수용도가 상위 집단의 아버지는 생활지도, 인지적 성취지도, 여가생활에서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가사생활에서는 두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연구(김광웅, 이인수, 1998)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함께 여가활동을 즐기고 생활지도에 적극 참여하는 경우 자녀는 사회적 활동성이 뛰어나고 다른 사람과 잘 협력한다는 연구 결과와 인기아의 아

버지는 자녀와 함께 노래부르기, 활동적인 놀이 즐기기 등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문혁준, 2000)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종합해 보면,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 역할 못지 않게 중요하며, 자녀의 발달에 매우 중요함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버지 역할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현실적으로 직장과 일에 쫓겨 바쁘게 생활하는 아버지들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들어 주 5일제 근무가 실시되고 있는 점은 가족이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증가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 선정에 있어 서울, 부산, 인천 등 7군데 유치원을 선정하여 또래수용도를 알아본 것으로 일반화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부모용 질문지를 아동을 통해 어머니, 아버지가 각각 응답하도록 하였으나 아버지의 부재, 늦은 귀가로 인해 아버지의 질문에 어머니가 대리응답 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또래수용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써 사용한 또래지명법은 아동으로 하여금 좋아하는 친구와 싫어하는 친구를 구분하여 지명하게 함으로써 신뢰도와 윤리적 문제가 따를 수 있어 교사에 의한 관찰 평정척도를 함께 병행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기질을 Buss와 Plomin (1984)을 근거로 정서성, 사회성, 활동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또래수용도를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나 후속연구에서는 기질과 또래수용유형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또래수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의 내적 특성과 부모 변인을 동시에 탐색하였다는데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아동의 또래수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아동을 둘러싼 맥락과의 관계를 통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또래수용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에 가정과의 연계가 절실함을 시사해 준다.

■참고문헌

- 고은주(1993). 유아의 기질과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적 적응.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광웅,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 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김 만(1996). 유아의 또래수용도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및 사회적 경험과의 관계.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6). 기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7(2), 19-32.
- 노현미, 박인진(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0(4), 231-245.
- 문태형(2002). 어머니의 사고양식 및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3(6), 49-63.
- 문혁준(2000). 또래 수용도와 부모 양육태도: 인기아와 독립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7), 39-52.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관련 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명숙(1998). 유아의 성, 기질 및 인기도에 따른 또래간 요구전략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은숙(1984). 아동의 기질과 인기도 및 양육태도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현희,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 참여행동과 아동의 친사회적 도덕판단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정현희,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 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천희영(1992). 한국아동의 기질 유형화와 어머니의 양육태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1993). 아동의 기질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아동연구*, 2, 19-31.
- 최형성(2001). 어머니의 사회적 지원 스트레스와 아동의 기질이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형성, 정옥분(20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22(3), 1-14.
- 한미자(2002). 아버지의 양육참여도와 아동의 자기능력지각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계옥(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2-14.
- Billman, J., & McDevitt, S. (1980). Convergence of parent and observe ratings of temperament with observation of peer interaction in nursery school. *Child Development*, 51, 395-400.
- Buss, A. H., & Plomin, R. (1984). Temperament: early developing personality traits. Hillsdale, NJ: Erlbaum.
- Carey, W. B., Fox, M., & McDevitt, S. C. (1977). Temperament as a factor in early school adjustment. *Pediatrics*, 60, 621-624.
- Coie, J. D., & Dodge, K. A. (1983). Continuities and change in children's social status: A five-years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29, 261-282.
- Coie, J. D., Dodge, K. A., & Coppotelli, H. (1982). Dimensions and types of social status: A cross age perspective. *Developmental Psychology*, 18, 557-570.
- Coie, J. D., Dodge, K. A., & Kupersmidt, J. B. (1990). Peer group behavior and social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Kupersmidt, J. B. (1983). A behavioral analysis of emerging social status in boy's groups. *Child Development*, 54, 1400-1416.
- Coleman, P. K., & Karnker, K. H. (1998). Self-efficacy and parenting quality: Findings future applications. *Developmental Review*, 18, 47-85
- Dorsey, S., Klein, Forehand, R.,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Elder, G., Eccles, J., Ardel, M., & Lord, S. (1995). Inner-city parents under economic pressure; perspectives on the strategies of parent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7, 771-784.
- Hoffman, L. W. (1989). Effects of maternal employment in the two-parent family. *American Psychologist*, 44, 283-292.
- Lamb, M. E. (1986). *The father's role: Applied perspective*. New York: Wiley, 3-57.
- Parke, R. D., & Tinsley, B. J. (1987). Family interaction in infancy. In J. D. Osofsky(Ed.), *Handbook of Infant Development*.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Stocker, C., & Dunn, J. (1990). Sibling relationships in childhood: Links with friendships and peer relationships.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8, 227-244.
- Teti, O. M., & Gelfand, D. 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2005년 10월 31일 접수, 2005년 12월 2일 채택)